"성장하며 겪는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보듬어 주세요"

④ 학업 포기하는 아이들

학교 부적응·가정형편에 학습기회 박탈

전면적 실태조사·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필리핀이 고국인 앨런(가명·여·35)씨는 두 아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 광동(가명·10)·광서(가명·3)군의 학교 부적응이 큰 걱정거리다. 자식 키우는 재미에 광주에서 월세와 전셋방을 전전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는 두 아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토록 명랑했던 광동군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지 못했다. 중도탈락한 것이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탓에 학교 과제물을 해갈 수 없어 선생님의 꾸지람을 듣는 횟수가 잦아진 데다 도드라진 피부색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이 심해져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것이다. 앨런씨는 한국어를 읽을 수 있지만 뜻을 몰라 숙제를 도와줄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대안학교인 광주 새날학교에 보냈지만, 이미 한차례 학교문제로 상처를 입은 광동군은 좀처럼 학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앨런씨는 한국 정부가 이 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대학입학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고교 과정까지만 마친 후 광동군을 필리핀으로 보내 대학교육을 시킬 생각이다.

둘째 광서군은 더 심각하다. 막일을 하는 남편(45)의 10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수십만원 하는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최근 필리핀 현지 친척에 맡겨 유아원에 보내고 있다.

앨런씨는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다 가정마저 쪼들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쳤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초·중·고교에 다문화 가정 자녀 3699명이 재학중이지만, 앨런씨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업중도 탈락에 대한 정확한 지역별 통계마저 없어 실태는 물론 대책마저 세울 수 없는 실정이다.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말 행안부와 교과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령에 해당하는 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 2만4867명 가운데 6089명(24.5%)이 정규교육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만4867명 중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12세 아동은 1만8691명으로, 이 가운데 2887명(15.4%)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전남지역만도 다문화 가정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돼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학생도 무려 226명에 달한다. 가정 형편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학습기회 마저 박탈당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선교회 석창원 목사는 "그동안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이 결혼 이주여성이다보니 자녀들의 학교부적응,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정형편이나, 부모들의 이혼으로 결손가정이 돼 어머니의 모국에 보내지는 아이들이 수십명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최근 법무부의 집계결과 베트남 국적의 부인이 한국에서 낳은 아기를 베트남에 데려갔다가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외교당국에 63건(올해 5월 기준)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당국이나 가족이 베트남 부인 또는 현지 보호자를 설득해 아기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온 사례는 31건이었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가 1만527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가정 형편 때문에 아이를 고국에 두고 오는 외국인 어머니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5~6학년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학습에 흥미를 잃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대부분 한국학생과 얼굴색이 다른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어머니를 둔 학생의 경우다.

다문화 사회에 걸맞지 않은 교육방식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고교 1년생인 상식(가명·13)이는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왜곡된 시선 때문에 수업을 듣는 것이 힘겹다고 한다.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등 과거사에 대한 '적대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탓에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중국, 필리핀 등 대부분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어머니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도 일상 풍경이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연구·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미(광주 남초교) 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적응을 잘하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사춘기 등 자아 정체성을 갖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 학생들과 섞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입게되는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보살필 수 있는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필리핀이 고국인 앨런(가명·여·35)씨가 21일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 근로자선교회 사무실에서 석창원 목사를 만나 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등을 상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자체 전담 인력 확충

교육 시스템 도입 시급

광주·전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인력 확충과 다문화 관련 교육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27개 지자체가 다문화정책 전담부서로 '사회복지 관련 팀·과'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서 가운데 상당수가 각종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다문화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곳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또 지자체 대부분이 다문화사업 담당 인원을 1명씩 배치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담당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는 광주 남구와 광양시, 장흥군 등 3곳 만이 3명의 담당 인력을 배치했으며, 광주 서구 등 6곳이 담당 인력 2명을 두고 있다.

심지어 다문화사업 담당 공무원 가운데 대부분은 인권이나 다문화 관련 교육 조차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인권사무소가 광주·전남 다문화사업 담당공무원 1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9명이 '다문화사업 관련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2명도 2시간 가량의 관련 교육을 받았지만, 다문화 관련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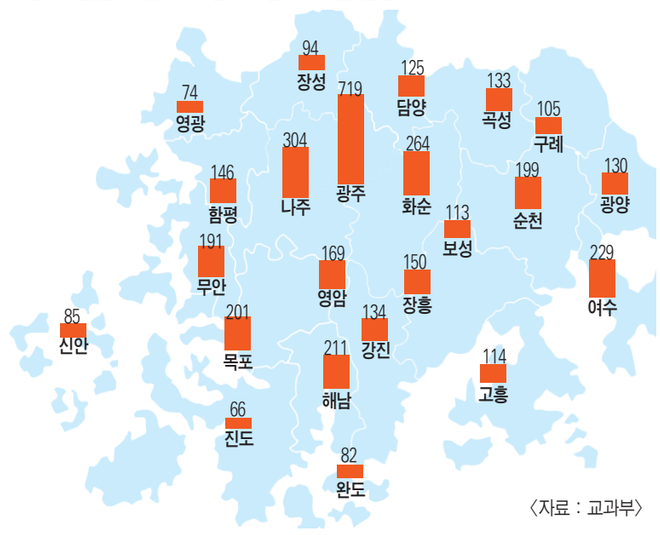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12명 중 9명도 '다문화 관련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답해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문화 관련 사업의 경우 일반 사회복지 업무와는 달리 출입국 관리를 비롯, 이주여성이나 자녀의 교육이나 취업, 인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미정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광주·전남의 다문화 관련 공무원들의 인권 관점과 가치관이 획일적이고 약하다"며 "인권친화적 다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교육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전남 다문화 가정 초·중·고교생 현황 (단위 : 명)



〈자료 : 교과부〉

특허번호 제 10-0488090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74637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55402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33037호

명품 두부 신기술 콩가득 갈아 마시는 전두부

가맹점 모집

즉석생식 웰빙 꼭딩처럼 고소한 콩의 맛

★점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희소식! 전두부 자동 제조기 하나면 OK! ※콩 관련 업종(기존식당) 재창업 및 업종 변경

전두부 장점

식이섬유 전두부는 일반두부의 (약 11배)
사포닌 전두부는 일반두부의(약 270배)
레시틴 전두부는 일반두부의 (약 30배)
이소플라본 전두부는 일반두부의 (약 3배)

전두부와 일반두부의 비교분석

구 분	전 두 부	일 반 두 부
원재료	생대두, 미세분말	생대두, 파쇄분
두부제조시간	40분(간단)	10시간(복잡)
용수 사용량	기존두부 1/5	다수의 수침 / 냉각용수 소요
비지 발생률	비지 발생 없음	두부의 120% 발생
폐수 발생률	폐수 발생 없음	대두의 10배 이상
생산성(대두 1kg)	20모 /·800g	약 10모 / 300g
영양분	대두의 전체 성분 보존	단백질 등 일부만 잔류
맛과 냄새	고소하고 담백함	담백함
보존성	기존 두부의 10배 이상	3~4일

전두부란? 콩을 통째로 미세분말하여 만든 두부로 식이섬유질(콩비지)과 미네랄 등 콩의 영양성분 100%를 담은 최고 명품 두부를 말합니다.

사포닌 대두의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담석증 예방 효과!
식이섬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므로 성인병 예방 및 변비 개선 효과!
레시틴 대두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암,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우울증, 골다공증 등의 예방 효과
이소플라본 식물의 배아에서 분리한 특수지방질, 이 성분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어 치매 예방 효과

초보자 창업 제조공정이 간단하며 본사의 적극 기술 지원 창업 용이
소자본 창업 가맹비, 로얄티가 없다. 창업자금(소상공인, 리스) 지원 운영, 홍보 등 본사 적극 지원
고수익 창업 점포 선정부터 완벽 노하우 전수, 메뉴(기능성) 다양으로 인한 고수익, 본사 적극 지원

※ 100% 국내산 콩만을 고집하는 명품 두부 기능성 두부(녹차두부, 카레두부, 흑두부, 쑥두부)
※ 최고 상권 다량 확보 보유, 적은 형별 ~ 큰 형별 운영 가능

오픈 가능 지역 광주, 순천, 목포, 여수, 전주, 익산, 군산

(주)대양하이텍 DAEYANG HI-TEC CO.,LTD. 광주·전남 체인본부 NAVER 대양하이텍 검색 상담문의 ☎062)383-0029, 010-6625-0866
※위치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후문 옆 ※매주 토요일 PM 1:00~ 시식 가능합니다
오픈 1호점 광주 금호지구 종원팰리스빌 밑 텃밭 상가 옆

AFRICA 아프리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호텔식
10월 26일(화) OPEN

• 팬싸인회 •
10월 26일(화) 오후 1시
탤런트 김성환 / 개그맨 배동성
전화예약후에 무료라운딩을 즐겨보세요!!
(단, 10월 31일까지)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호남 모든 골프장을 현장의 감동만 담았다!!
300만 골퍼가 인정한 현장감!!

회원 모집중!!
• 각 룸별 독립공간, 안락한 라운딩 제공
• 필드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화면의 초대형 스크린
• 골프장의 지면에 따라 타석이 움직이는 최신 무빙시스템
• 장타대회, 니어핀 대회 등 온라인 상시 골프대회
• 전타석 스윙 분석기 설치
예약문의 : 062)671-8900

한우삼형제 방림지구대↑ 뚜레쥬르 롯데슈퍼센터 아프리카 효정형외과 동아중 고등학교 무등 4차→ 입구 남부경찰서↓ 무등3차
봉선동 무등 4차 복합상가 지하